

# 전원규 깜짝 우승...5년만에 무관恨 풀다

초반 황인혁·김범수가 앞선 장악 백스트레치부터 젓히기 승부 우승 "큰 대회 우승 영광...더 최선을 다할것"

영광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무려 5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24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제26회 스포츠조선배에서 전원규(23기 S1 33세)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데뷔 이후 5년 만에 무관의 설움을 처음 출전한 대상경륜에서 우승으로 털어냈다.

24일 결승에는 전원규를 비롯해 황인혁(21기 SS), 김희준(22기 S1), 황승호(19기 S1), 김범수(25기 S1), 성낙송(21기 SS), 왕지현(24기 S1) 등이 진출했다. 수도권팀에서 결승에 3명만 진출해 충청권, 경상권의 접전이 예상됐다. 경주 시작과 함께 예상대로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초반 충청권의 황인혁, 김범수가 앞선을 장악했으나 백스트레치부터 전원규의 혼신을 다한 젓히기 승부수가 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희준과 황승호가 그 뒤를 따랐다. 전원규는 우승상금으로 1400만 원을 수상했고 2위와 3위를 차지한 김희준과 황승호는 각각 11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상경륜은 2022년 시즌 들어 두 번째로 열린 대상경주다. 특히 경륜 절대강자인 임채빈이 국가대표 평가전



올해 두 번째 대상경륜에서 5년 무관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한 전원규.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참가를 위해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우승 후보가 쉽게 접쳐지지 않았다.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팬과 전문가들의 예상은 혼전이었다. 임채빈이 없는 레이시이다 보니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슈퍼특선급임에도 성낙송은 외면을 당했고 전문가 예상에

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주목을 받은 '핫 이슈메이커'는 신승강자인 22기 정해민이었다. 정해민은 부진한 슈퍼특선 정하늘, 특선 준강자로 하락한 신은섭 등이 있는 동서 올림의 희망이었다. 임채빈이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으며 슈

퍼특선 황인혁과의 대결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막상 경주가 진행되자 슈퍼특선 성낙송의 노련미에 밀려 준결승도 통과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같이 관심을 모았던 26기 신인 간판 김영수도 경주운영의 미흡함을 노출하며 예선에서 탈락했다.

준결승서 떨어진 정해민 대신 황인혁에게 전원규(23기 혼련원 2위)와 김희준(22기 혼련원 1위)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승호와 성낙송은 베테랑의 관록을 내세웠다.

이날 경주는 베테랑들에게는 무척 절실한 무대였다. 특히 성낙송은 슈퍼특선 반 중 유일하게 공백기 동안 대상경주 경험이 없었다. 슈퍼특선임에도 올해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재도약의 발판이 필요했다. 반면 전원규와 김희준은 선배들을 상대로 세대교체를 외쳤다. 결과는 전원규와 김희준이 동반입상하면서 세대교체가 거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원규는 우승 인터뷰에서 "최근 몸이 많이 올라왔는데 큰 대회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전원규의 우승으로 임채빈이 독식하던 대상경륜에 오랜만에 또 다른 우승자가 나타나 앞으로 임채빈이 없는 특선급에서는 열린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장애인과 함께하는 탤런트 사이클을 위해 기부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4일 광명스피돔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탤런트 사이클 운영과 기부금 전달식(사진)을 개최했다. 장애인 주관을 맞아 시각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이 경륜선수로 구성된 파일럿과 함께 탤런트 사이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타는 자전거)에 탑승해 선수소개 주행과 경주시작 8분전 다음 경주를 소개하는 것발 사이클에 부착하고 자유 주행을 진행했다. 11경주 후에는 인필드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500만 원의 기부금은 탤런트 사이클 발전과 선수 지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대상경륜 시상식에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핸드 사이클 은메달리스트인 이도연 선수가 1위 시상자로 나섰다.

## 부부 최강자전 등 경정 20주년 이색 이벤트 풍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정 20주년을 기념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색적인 이벤트 경주를 시행한다. 3월부터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건의 경주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월 2~4회 진행되는 이벤트 경주는 체중별(고체중, 저체중) 대항전, 부부 최강자전, 친구·친인척 등 관계자 대항전, 지역별 대항전, 재미있었던 추억의 경주, 군 출신별 대항전, 패자 부활전, 출발위반 다수자 대결, 세대차이 극복경주, 최고의 선수와 최상의 모터 승부, 입상 없는 선수들의 격돌, 최다 2위 대항전, 선수 상금 워스트 6, 등급별 코스 쟁탈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한편 2일차(목요일) 15경주에 진행되는 이벤트 경주와 연계해 5월4일(제18회차)부터 경주 수를 1일 16경주에서 17경주로 확대한다. 첫 경주시간(오전 11시 40분)은 기존과 동일하나 경주 수 확대에 의해 경주 간 간격은 일정부분 축소된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 조성인 설욕전...4년만에 대상 트로피

첫 대상경정 '스포츠월드배' 우승 "계속 준우승 그쳤는데...후련하다"

올해 첫 대상경정인 제14회 스포츠월드배에서 12기 최강자 조성인이 왕좌에 올라섰다. 이번 대상경정은 16회차 1일차(20일) 13, 14경주 예선을 통과한 6명이 결승에서 맞붙었다. 이번 레이스는 조성인의 설욕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지난해 쿠리하라배에서 옆자리의 김종민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낭패를 봤다. 당시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정확하게 인빠지기를 구사했다. 이후 결승선까지 실수 없이 순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조성인.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를 유지하며 골인했다. 2018년 쿠리하라배 우승 이후 4년 만에 대상경주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조성인은 우승상금으로 1000만원

을 받았다. 2위의 안지민은 여자 선수로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해 참가한 경주운영으로 치열한 후착 접전을 이겨내고 상금

7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올해 다수부 1위인 김종민은 아쉽게 3착에 그쳤다. 이번 대상경정은 결승을 앞두고 여러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먼저 지난해 쿠리하라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에서 김종민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며 계속 2위에 머문 조성인이 이번에는 대상경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다. 여기에 여자 선수의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 안지민과 신승강자인 류석현, 김용선의 입상 가능성 여부 또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승은 조성인이 1코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옆자리의 김종민, 안지민과의 동반입상이 순차적으로 예상되면서 경주가 시작됐다. 스타트를 주도한 후 인빠지기에 나선 조성인이 일찌감치 선두

를 확정지었다.

후착권은 계속 접전이 이어졌다. 초반 김종민과 안지민, 류석현의 후착 삼파전 양상으로 진행됐으나 김종민이 1주 2번 마크 류석현을 견제하는 사이 안지민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홈스트레치에서 안지민이 살짝 앞섰다. 추격의 끈을 놓지 않은 김종민이 다시 2주 1번 마크에서 순위를 뒤집는 듯했으나 마지막 2주 2번 마크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은 안지민이 탄력을 살리면서 간발의 차이로 김종민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성인은 경주 후 우승 소감에서 "작년에 계속 준우승에 그쳤는데 올해 우승을 해서 후련한 마음"이라며 "오늘 경주 승리의 포인트는 경주 중 바람이 많이 줄었고 스타트를 빠르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원세프의 행복식탁**

## 업종추가(삼인삼)로 추가매출, 추가수익

전면부 3m(4평) 공간만 있다면 어떤 매장이라도 가능, B급 상권도 OK, 고깃집 점심장사 가능

**대세 입증된 밀키트 매장**

3월 가맹 특전

- 모든 공사 원가제공 or 자체시공
- 선착순 5명 1000~1500만원 무이자 대출

**히트 메뉴** 원세프의 행복식탁


30여가지의 대표메뉴가 열일을 합니다. 폐업하지 말고 업종추가로 위기극복하세요.

다양한 메뉴구성

가성비 최고

간단한 삼인삼

**기존 직원만으로 월400~800만원추가 수익**

매출 부진으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최소의 비용으로 확실한 추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밀키트 브랜드 원세프의 행복식탁의 모든 메뉴를 내 가게에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원추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 없이 메뉴화해 판매하셔도 됩니다.

**원세프의 행복식탁**만의 경쟁력으로 위기 극복

- 오히려 A급 매장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업종추가 비용 모자라면 빌려드립니다.
- 숨인숨으로 매출 시너지가 상당합니다.
- 추가매출이 간절한 매장에 안성미춤
- 어떤 매장이라도 4평 공간만 있으면 OK
- 최고 마진율로 매장 수익 극대화

**선착순 무이자 대출 1,500만원**

NAVER 원세프의 행복식탁

**02-2203-2048**